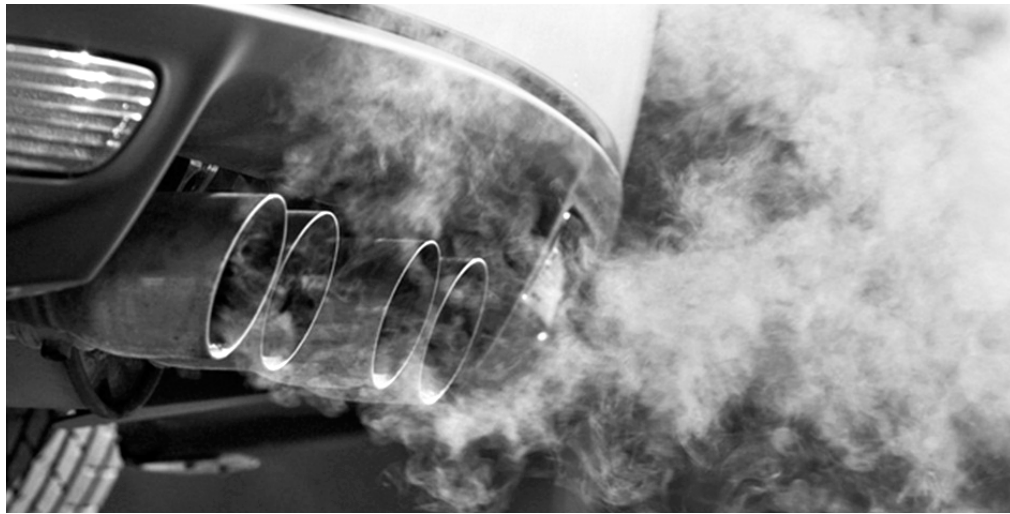


디젤차 배기가스 강화된 측정기준 적용 늦춰지나

업계 “유예기간 너무 짧다” 불만 정부-업계 이번주 본격 논의 시작 내달 도입서 점진적 충족 가능성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강화된 디젤차 연비·배기가스 측정 기준을 놓고 완성차업계에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디젤차의 배기가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강화된 디젤차 연비·배기가스 측정 기준을 놓고 완성차업계에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완성차 5개 업체는 환경부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디젤차 배기가스 새 측정기준(WLTP)과 관련된 준비 현황과 유예 확대 등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6월 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9월 1일부터 디젤 차량의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까다로운 국제표준 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테스트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0.08g/km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인증을 받는 모델들은 당장 9월 1일부터,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1년 뒤인 2018년 9월 1일 이후 새 WLTP 기준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대로라면 인증에 실패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다.

완성차업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새 기준을 준비하기엔 남은 13개월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울상이다.

앞서 1년 전 2016년 7월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실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 도입 준비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추가로 ‘WLTP’ 기준까지 맞추라니 당황스럽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도로 배출허용 기준의 경우 신규 인증 차에는 WLTP와 마찬가지로 9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유예기간은 WLTP보다 1년 긴 2019년 9월 1일까지 2년이다.

이런 업계의 불만소리에 환경부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EU 규제 동향을 알리고 EU와 공조해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

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사전예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 없이 동향 설명만을 근거로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관련 연구·개발(R&D)을 미리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특히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디젤 소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다수 보유한 르노삼성과 쌍용차 입장에서는 ‘1년내 WLTP 준비’는 판매 부진이나 노사 갈등과 맞먹는 수준의 ‘악재’다.

이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중인 기존 차량을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를 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변경,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길게는 36개월, 아무리 짧아도 24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은 유예 연장 등의 요청 사항을 최근까지 개별업체별로, 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를 통해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들이 제안한 대안에는 기존 판매 모델이 내년 9월 1일까지 100% WLTP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네이버, ‘그린카’와 손 잡고

차량정보 서비스 ‘어웨이’ 출시

네이버가 차량공유 업체 ‘그린카’와 함께 차량 정보 서비스인 ‘어웨이’(AWAY·사진)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차량 정보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목적지 검색·내비게이션(길안내)·음악·라디오 등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네이버가 이 분야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그린카는 수 시간 단위로 짧게 차를 빌려주는 업체다. 그린카 사용자는 예약 시 어웨이가 탑재된 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린카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으로 내비로그인을 하면 예약 차량에 타자마자 자신에게 최적화된 어웨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 IT(정보기술)와 만나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곧 진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차량정보 서비스는 IT 업계의 핵심 유망 업종으로 부상한 상태다. 구글·애플·테슬라·카카오 등 IT 대기업이 이미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의 어웨이는 차량 운전석 위에 설치되는 태블릿 PC 크기만한 전용기기로 구성된다.

네이버 계정(ID)을 통해 로그인해 쓸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음성 장소 검색, 음악 감상, 스포츠 라디오 켜기, 팟캐스트 듣기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특히 네이버가 축적한 방대한 레스토랑·상점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검색 기술을 도입해 ‘맛집을 찾아줘’ 등과 같은 음성 주문도 바로 이해해 적합한 결과를 알려준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연합뉴스

토요타 美서 ‘카셰어링’ 실증실험

토요타자동차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로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는 흐름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카셰어링’(차량공유) 실증실험에 나선다.

지난 18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동차를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실용화를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연내에 하와이의 판매대리점 ‘서브코’(Servco)와 공동으로 실증실험을 시작한다.

카셰어링이나 배차 앱의 보급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카셰어링은 소비자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복수의 사람과 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차장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불필요하다. 렌터카보다 차를 타는 기회가 많은 소비자의 이용이 늘고 있다.

도요타는 판매점이 카셰어링 사업을 하기 위한 앱을 IT 사업 담당 자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합작사인 ‘도요타 커넥티드 노스아메리카’를 통해 개발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차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거나, 차량의 예약이나 열쇠 개폐 등을 할 수 있다.

판매점 측은 네트워크를 통해 차나 이용자 상황과 결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공용공간만 있으면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가능”

환경부, 설치·운영 지침 개정

■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완속 충전기 설치에 그동안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돼왔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완속 충전시설은 1606대에 이른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으면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충전기 설치 신청이 얼마나 늘어올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완속 충전기 9000대를 설치할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속 충전의 필요성이 적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될 완속충전기는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통상 4~5시

간이 걸린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에 있는 급속 충전기는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등의 이유로 사실상 급속 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아울러 급속 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반영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급속 충전기 1076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급속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가이드’를 지난 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해커톤 행사 모습.

<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 SW 능력 겨루는 ‘해커톤’ 행사 연다

성적 우수자 채용전환 혜택

현대·기아자동차가 미래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SW) 능력을 겨루는 ‘해커톤’ 행사를 연다.

현대·기아차는 21일 해커톤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SW 인재들이 팀을 이뤄 마라톤처럼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서 SW 개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행사다. 최대 세 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 외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해커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현대·기아차는 우수한 성적을 낸 참가자에게 상금과 채용 전환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검토 대상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커넥티드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간다.

회사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27일 본선에 참가할 40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오는 11월 초까지 멘토링을 받고 기본적인 역량을 쌓는다. 본선은 같은달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치뤄진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 매”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